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2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남녀 분리 않고 뽑았더니...순경 통합선발 결과 뒤집혔다	사회	주요뉴스
2	4년 전 그 심판 배정됐다...남아공전 경계령 떨어진 이유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올해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 2천941명 가운데 여성이 1천112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1천829명으로 62.2%였습니다.

총 응시자는 2만 9천972명이었는데 이 중 남성은 62.9%, 여성은 37.1%로 최종 합격자 성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순경 공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뽑는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전면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을 별도로 두고 선발해 왔는데 여성 선발 비율은 통상 2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첫 통합선발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2일)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그동안 여성 선발 인원이 제한돼 경쟁이 더 치열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성별을 분리해 선발하던 지난 3년간 여성 경쟁률은 남성 경쟁률보다 최대 2.5배 더 높았습니다.

유 대행은 그러면서 여성 경찰관 증가 전망에 대해선 "전체 경찰 가운데 여성 비율은 16.7%"라며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순환식 체력 검사 통과율은 남성이 88.6%, 여성이 42.5%로 전체 통과율은 63.9%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은 여성 합격자 증가로 범인 제압 등 현장 물리력 행사 능력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거"라면서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올해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뽑는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전면 적용했는데, 여성 합격자 비율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32강행 운명이 걸린 남아공전을 관장할 주심은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 우리와 포르투갈전을 맡았던 바로 그 심판입니다. 카드를 자주 꺼내 드는 엄격한 성향으로 유명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부터 국제 심판으로 활동해 온 아르헨티나 출신 테오 심판은,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 컵대회 결승전에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집단 몸싸움을 벌인 선수들과 항의한 감독, 판정을 비꼬던 선수까지 무려 11명을 퇴장시켰고 옐로카드도 12장이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인 승리를 거둔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의 주심을 맡았는데, 당시 우리 선수 2명에게 경고를 쏘았습니다.

이강인에게는 태클 상황에서, 황희찬에게는 득점 후 유니폼을 벗어 던진 상황에서 옐로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당 경고 4.7개, 파울 24개를 볼만큼 엄격한 성향인 테오 심판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캐나다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에서 거친 태클과 역습을 저지하는 파울에 어김없이 휘슬을 불며 옐로카드를 5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 1차전, 24경기의 평균 경고 횟수 2.33개의 두 배가 넘습니다.

또, 테오 심판은 이번 대회에 신설된 5초 안에 스로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공격권을 상대에 넘기는, 이른바 '스로인 5초 룰' 위반을 처음 지적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에선 이강인과 백승호, 이기혁 등 3명이 경고 1개씩을 받았는데, 남아공전에서 경고가 누적되면 32강전을 뛸 수 없게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32강행 운명이 걸린 남아공전을 관장할 주심은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 우리와 포르투갈전을 맡았던 바로 그 심판으로, 카드를 자주 꺼내 드는 엄격한 성향으로 유명한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토큰맥싱	'토큰(Token)'이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니와 같은 거대언어 모델(LLM)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최소 단위다. 토큰맥싱은 생성형 AI 모델의 토큰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AI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문화를 뜻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아이작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작업하는 지능과 행동을 학습하는 엔비디아 플랫폼이다. 로봇을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만든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적의 동작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로봇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